

광주시·전남도, 오늘 “행정통합 추진” 공식 선언

姜시장·金지사, 5·18묘역 공동 참배

‘행정통합 추진 선언문’ 발표 예정

개별 추진단+협의체 공동 구성키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공동 행보에 나선다.

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

전남행정통합 추진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전날 서면보리평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양 시·도가 각각 행정통합 추진단을 운영하고 공동 논의기구인 (가칭) ‘시·도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행정통합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통합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전남도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행정통합추진단 구성을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시·도는 추진단과 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정책적 과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영록 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설치 계획(본보 12월30일자 1면)을 밝힌 데 대해 강기정 시장이 즉각 환영 입장장을 내고 공동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면서 양 시·도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남이 (통합을) 결심한 것은 일의 절반이 진행된 것’이라며 “지금 바로 행정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5급 3특 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광주가 (통합 시기를) 4년 뒤나 다음으로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법적 조건만 갖춰진다면 나머지 문제는 함께 풀어가면 된다”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 광주·전남이 별도 추진단을 만들되 ‘행정통합추진협의체’

를 공동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이 갖춰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행정 통합 신속 추진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 양 시·도지사가 공동 행보에 나서면서 향후 광주·전남 행정 통합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김영록 지사, 목포 현충탑 참배
병오년 새해 첫 날인 1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 실·국장 등 관계자들이 목포 현충공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OK 지금은 전남시대”를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본궤도 오른다

행안부, 규약안 승인 법적절차 마무리
市·道 실무회의…규모·예산 등도 확정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명 정부의 ‘5급 3특’ 국가균형성장 모델을 뒷받침할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출범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승인, 특별광역연합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절차다.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 필요

성에 공감·합의하고 양 시·도의회가 규약안을 최종 의결한 데 이어, 중앙정부의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인된 규약이 고시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연합의회 구성과 연합의장 선출 ▲사무국·의회사무처 설치 등 운영체계 구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규약에 따르면 특별광역연합 소재지는 전남도에 두며 조직 등은 연합조례를 근거로 한다.

직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총 1

2명으로 양 시·도의원 각 6명씩 동수로 참여해 의사 결정의 균형을 확보했다.

특별광역연합의 예산은 30억원 규모이며 광주시는 이미 1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내년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날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와 의회 실무대표가 참여한 ‘4자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규약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연합 규모, 예산(분담금), 조례 및 규칙 등의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광주시·전남도는 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단계적

으로 창출할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

고용부 평가서 73.1점 기록

광역시·도 평균 7.4점 상회

전남도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생활 균형지수’ 평가에서 총점 73.1점(가점 제외)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8년부터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유도·확산하기 위해 매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일(근로·휴가시간, 유연근무제) ▲생활(여가·가사 시간) ▲제도(육아휴직, 보육

시설) ▲지자체 관심도(조례, 홍보) 등 4개 영역과 가점을 포함해 총 5개 영역, 25개 지표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일·생활 균형지수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평균은 63.7점이며 전남은 이보다 7.4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3년과 비교해도 9.3점 상승한 수치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더 넓게 확산해 도민이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고흥군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선정

해수부, 2030년까지 1천900억 투입

전남도는 1일 “해양수산부의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수산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이다. 새정부 조력선 15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산업의 구조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해수부 주관 공모에서 고흥군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종사업비 1천9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AI·첨단기술을 활용한 고효율·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쿠아팜 기

업을 육성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미래형 수산업 모델을 구현한다. /양시원 기자

시, 호우피해 복구 맞춤형 지원 마무리

광주시는 1일 “지난해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마련한 약 5억원 규모 기부금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의 피해 유형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구·시설별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 유형과 제도적 사각지대 여부를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변은진 기자

◀ 광주매일신문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용진(600817-******)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28조 제3항에 대한 공고 회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한 공고로부터 2개월이내에 제출 또는 수령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5-단353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김효원
○한정승인수수일: 2025년 12월 10일
○공고기간: 2026년 1월 2일 ~ 2026년 3월 2일
○연락처: 광주 서구 화운로 224, 101동 1202호 (화정동, 도나우프리아파트) (010-8022-1620)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안)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의 명칭: 청풍명일 태양광발전소
2. 발전소의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1563-3번지 일원
3. 발전소의 면적: 약 238,575㎡
4.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 용량: 49,994.7kW (50MW)
- 사업 개시 예정일: 2028년 12월 1일
- 사업 운영기간: 2028년 12월 ~ 2053년 12월 (25년간)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주식회사 청풍명일 대표이사 박성수
(최대주주: 주식회사 제이비그린)
6. 의견제출 기간:
2025년 1월 2일 ~ 2026년 1월 15일 (14일간)

7. 의견제출 방법
- 전화: 042-485-4422
- 팩스: 042-485-4433
- 메일: hahyunjuns@naver.com
2026년 1월 2일
공고자: 주식회사 청풍명일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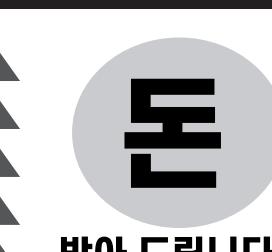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2026년 1월 2일
공고자 : 주식 회사 청 풍 명 일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히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